

보도 일시	2022. 1. 10.(월) 09:00	배포 일시	2022. 1. 10.(월)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용섭 (044-203-2411)
		담당자	사무관 황인호 (044-203-2412)

한류 콘텐츠 성과 창출, 지속 확산 위해 현장과 소통

- 1. 11. 문체부 장관,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월 11일(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열고 한류, 실감콘텐츠,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작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제작자, 기업인, 전문가 등 정책 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류(K) 콘텐츠 해외 진출 사업, 실감콘텐츠 및 방송 영상콘텐츠 육성 사업, 한류 확산에 따른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마련 등 올해 문체부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문화 전반 및 연관 산업으로 한류 파급효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류의 산업적 영향력 확대, 국내외 문화교류 수요 대응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국내외에서의 한류 문화교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와 4대 연관 산업[문화·식품·미용·브랜드 케이(K)]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업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한류의 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 한류 관련 기업들과 연관 산업 기업들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45억 원), ▲ 해외 거점지역에 홍보관을 조성해 한류 연관 상품들의 인지도를 높이며 해외 진출을 지원(40억 원)한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에서 한류 박람회도 개최(20억 원)한다.

또한 국내 대표 한류행사인 한국문화축제를 케이팝(K-pop)과 드라마를 두 개의 축으로 하는 대표 국내 종합 문화행사로 기획(92억 4천4백만 원)해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접점을 확대하고 방한 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다.

실감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대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실감콘텐츠 산업을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 창의 인재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영화, 웹툰, 게임 등의 유명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제작과 체험 지원(60억 원), ▲ 실감콘텐츠와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70억 원) 등을 통해 실감콘텐츠 산업 신시장 창출을 적극 돕고, 세계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 소장품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제작도 지원(156억 원)해 실감콘텐츠로 재탄생한 문화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작사의 지식재산권 보유형 제작 지원 사업 확대 등으로 방송 신한류 지속 견인

아울러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높아지는 수요에 부응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131억 원을 증액한 약 408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 기획안 공모전 등 기획개발 신설(42억 원), ▲ 수출 경쟁력 있는 우수 콘텐츠 제작 확대(268억 원), ▲ 현지어 자막·더빙 등 해외 진출용 재제작(98억 원) 등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제작·유통의 선순환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작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116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21년 15억)해 제작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간다.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하는 장치 마련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2년부터

3년간 총 177억 원을 투입('22년 44억 원, '23~'24년 133억 원), 침해
인지부터 심의 조치까지 단계별 업무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22년 자동화 검색기술 및 민관
협력 기반의 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한류콘텐츠
소비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해 더욱 능동적
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희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산업계의 노력으로
한류 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한류가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콘텐츠업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작년
12월 17일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사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간담회 100회 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인원이 제한적임을 고려해, 분야별 공공기관 누리집과 유튜브, 누리소통망
(SNS) 등을 통해 대국민 비대면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문체부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게임물
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미스협회 등 문체부
전 분야 공공기관 누리집 등을 활용해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용섭 (044-203-2411)
		담당자	사무관	황인호 (044-203-2412)
<실감>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용섭 (044-203-2411)
		담당자	사무관	배승환 (044-203-2415)
<한류>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책임자	과장	신용식 (044-203-2381)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44-203-2378)
<방송>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3231)
		담당자	사무관	김재원 (044-203-3236)
<저작권>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책임자	과장	표광종 (044-203-2491)
		담당자	사무관	박진성 (044-203-2091)